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사랑방 바이블 데이가 오후 2시30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경기도 대안학교연합회 정례모임이 7월 4일(금) 11:00시 새이레기 독학교에서 모입니다.
- 7월 공동체 일정입니다. 참고바랍니다.
5일(토) 멋쟁이학교 종강발표회 / 6일(일) 역할공동체 실행위원회
7일(월)~11일(금) 멋쟁이학교 종강여행
8일(화)~10일(목) 꾸러기학교 여름여행
13일(일) 공동체운영위원회 / 15일(화) 꾸러기, 어린이학교 방학
18일(금) 지역사랑방 방학 / 31일(목)~8/3일(일) 여름공동체생활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박태규 · 전향옥 집사 가정 (감사)
한호남 · 정승희 집사 가정 (감사)
전선희 집사 (감사)

강단을 꽃으로 : 박예찬 집사 (생일 감사)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26 호

2025년 6월 29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아는 것과 알고 있다고 믿는 것

무엇을 먹느냐! 음식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배부르고 입에 맛있는 음식을 넘어 건강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정보가 넘쳐나고 TV를 틀면 맛있는 음식점을 소개하거나 건강한 조리법을 소개하는 프로를 쉽게 보게 됩니다. 인터넷과 블로그, SNS를 통해서도 맛집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찾아가 여행지에서 맛있는 집을 찾았다면 이제는 맛집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여행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몇 년 전 겨울 가족들과 부산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가족여행을 갔으니 맛있는 음식을 먹자며 TV에 소개 되었던 유명하다는 낙지볶음 집을 찾아가했습니다. 뚜껑조차 덮이지 않는 가득한 채소위에 살아 움직이는 커다란 낙지 한 마리를 기대하고 찾아가 맛집!! 그러나 화면에서 보았던 커다란 낙지 한 마리는 아무리 찾아도 없고 이미 잘게 잘려지고 숨이 끊어진지도 좀 되어 보이는 낙지와 자작하게 쌓여있는 채소들. 덮이지 않았던 뚜껑은 잘도 덮여있었습니다. 실망감이 크고 화도 났지만 시킨 음식을 두고 배고파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수도 없어서 불편한 마음으로 그냥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종 찾아가 맛집들이 알려진 것에 비하여 맛이 없거나 방송에서 보여졌던 음식의 양과 질이 다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미 방송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곳이 어떤 곳이며 어떤 음식이 나오게 될지 안다고 믿고 찾아가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내가 정말로 아는 것과 알고 있다고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은 내가 직접 먹어보지 않았더라도 방송을 보며 어떤 맛을 느끼게 될 거라는 나의 바람과 기대가 들어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음식'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얼마 전 TV를 통해 우연히 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대학교수님이 나와서 강의하시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잘 알지만 좋아하는 것은 잘 모른다. 다른 여러 나라들보다도 특히 **선교와 섬김**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고 가르치는 우리 사회가 더 그렇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엄마는 내가 어떻게 할 때 싫어하나?'라고 질문하니 학생들은 다양한 답변을 쉽게 적어 냈지만 '우리 엄마는 내가 어떻게 할 때 좋아하나?'라는 질문에는 '내가 공부할 때'로 거의 같은 답변을 적었다고 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며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습니다. 좋아하는 친구,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장소, 좋아하는 시간 등등. 그런데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좋아하는 것이 잘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과 구체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바람을 담아 싫어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하지 않으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했다고 착각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오해하고 단정 짓고 혼자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고 믿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안다고 믿는 것에서 진정으로 알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구체적인 관심,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당장은 마음이 어렵고, 몸이 힘들고 손해 보는 것 같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믿음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다운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
<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261, 426 / 264

기도 :

성경 : 민수기 5장

제목 :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 깨끗함

1-4 부정으로부터 깨끗함

해석: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깨끗해야 한다.

적용: 나를 깨끗케 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자.

5-10 잘못된 관계의 깨끗함

해석: 잘못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적용: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자.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자.

11-31 부부간 의심의 깨끗함

해석: 부부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야 한다.

적용: 부부사이에 의심하지 않는 바른 관계를 맺자.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따르자.

2025년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2025년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모든 학기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대학교라는 환경에서의 첫 서사가 뜻깊게 느껴집니다. 저는 익숙했던 공동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기 위해 인천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멋쟁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서의 나에 대해 큰 걱정이 없었기에, 인천에서도 뭐든 잘해 나갈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천이라는 낯선 도시에서의 시작은 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독립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멋쟁이를 뺀 ‘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환경부터 나 자신까지 새로운 것투성이인 상황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는 늘 익숙했던 멋쟁이학교 같은 환경을 바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곳에서의 나를 인정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적응이 쉽지 않은 않았고, 때로는 나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나의 전부였던 ‘멋쟁이’라는 수식어에서 조금 벗어나 나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나’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투성입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멋쟁이학교 그리고 사랑방공동체에 마음을 둘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위로와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응원과 기도 그 안에 있는 사랑에 늘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곳에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새로운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겠다는 결심 그리고 욕심이 생깁니다. ‘감사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2025년을 시작할 때 새로 세운 저의 가치관입니다. 사랑받는 것에 가장 집중했던 전과 달리, 지금은 내가 감사하고 사랑한다면 위 문장의 3분의 2를 완성시킨다는 사실이 더 깊게 와 닿습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감사와 사랑을 나눈다는 것,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랑방공동체가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기에, 이곳은 참 멋진 곳입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공동체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단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영받는다는 것에 대해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공동체에서 느낀 마음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늘푸른사랑방 이은빈 청년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편 23 : 1-3, 6
39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갈라디아서 5 : 1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95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

요한복음 10 : 1-18
412

인도자
따뜻한사랑방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569

410(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김예지 김이레 / 봉헌위원 : 정혜정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생명의 꿀을 먹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목자의 음성. 성경에서는 이상적인 왕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목동 출신 다윗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도둑과 강도는 백성들을 수탈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양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따릅니다.

양의 문 목자. 목자는 스스로 양 우리에게 누워서 출입구가 되어서 양들을 보호합니다. 목자는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양을 우선적으로 돌봅니다. 안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꿀을 먹여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도록 돕습니다. 자신에게 속한 모든 양들을 책임 있게 돌보는 것은 가장 명예로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선하신 목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목자와 양은 하나 된 관계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양은 목자를 위해서 서로 내어 줄 수 있습니다. 목자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양식을 꿀로 삼으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최신혜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꾸러기학교에는 매 달 성경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진 나무 교구를 이용해 선생님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지난 수요일에는 '선한 목자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언제나 들썩들썩 시끌벅적한 꾸러기들도 이 시간에는 매우 조용히 집중해서 잘 듣습니다. 이야기 후에는 나무 교구를 만지며 성경 이야기를 되짚어 보는 교구놀이 시간을 가집니다.

꾸러기들은 아침모임 시간에 한 달에 두 가지 말씀을 외우는데 그 중 한 말씀은 그 달의 성경이야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요즈음 외우는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또 성경이야기 내용이 고스란히 가사에 담긴 노래를 배워 틈 날 때 마다 부르고 성경이야기 활동도 합니다. 이번 달 활동은 꾸러기들이 양이 되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보살핌을 받는 역할극입니다.

이렇게 듣고 보고 외우고 오감을 통해 경험해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꾸러기들의 마음속에 잘 심겨지기를,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어린이학교의 각 활동부서에서 장마철을 맞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트램블린을 타지 않기로 하고, 자전거는 되도록 천막 안에 주차하고 자전거의 헬멧은 비를 맞지 않도록 게르 안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사물함과 방충망 등 수리와 보수가 필요한 시설들도 살피고 있습니다.

이번 주 LTSS의 수업은 환경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미세플라스틱에 대하여 배우고 플라스틱의 대체물품인 밀랍랩 만들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우리 가족이 함께 지

배움과 가르침

킬 약속 한 가지'를 정해오는 숙제가 있었는데 어린이들 중 몇 친구 가정의 약속을 소개합니다.

'일주일에 과자를 한 봉지만 먹겠습니다.' '6월까지는 더워도 에어컨을 켜지 않겠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코드는 뽑아 놓겠습니다.' '종이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사지 않겠습니다.' 등 어린이들 가정의 여러 약속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이 모아지면 좋겠습니다.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노을을 배경으로 보리수를 실컷 따먹는 멋쟁이들이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보기 좋은 요즘입니다. 무덥고 습한 장마 기간에 들어서 쏟아지는 할 것들에 바쁘면서도, 이렇게 식사 후 보리수를 먹고 씨를 누가 더 멀리 뺏나 경쟁할 여유를 부리는 것이 즐거워 보입니다.

실제로는 많은 멋쟁이들이 종강을 준비하며 참 바쁘게 보냈습니다. 특히 포천시 청소년 예술제를 준비하는 풍물팀원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짧은 시간에 열심히 연습했고, 화요일에 반월아트홀에서 연주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학생들이 손을 치켜들며 환호하고, 다른 학교의 관계자 분들이 칭찬하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뿌듯함을 남기며 멋쟁이들은 다시금 종강발표회 대본을 읽어보고, 틈틈이 영상을 촬영하고, 공동심화학습 <음악이론기초와 합창>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점차 마지막임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린수업 시간에 조금 업데이트 된 학기말 자율평가서를 작성했습니다. 바쁜 점들이 있어서 선배들도 시간이 더러 걸렸지만, 미리 이번 학기를 잘 준비했던 멋쟁이들은 그래도 수월하게 잘 마쳤답니다.

이제는 기말면담과 종강발표회가 있는 마지막 생활주간입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멋진 추억들을 남기길 바랍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종강발표회라는 마무리까지 함께 응원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까이 산에서 들려오는 빠꾸기 소리를 들으며 아침잠에서 깨어 일어나 따뜻한 물 한잔을 마시고 바로 뒷산으로 올라갑니다. 나무 숲 사이로 비치는 햇살과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가벼운 운동과 산책으로 아침 일상을 시작합니다.

2025년. 저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몸은 튼튼하지는 않았지만, 잔병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 왔는데 작년 11월 건강검진에서 뜻하지 않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건강이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너무나도 뜻밖의 진단을 받고 오진이었으면.... 꿈이었으면 하고 바랐던 것 같습니다.

진단. 수술.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얼마나 겁이 많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순간순간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찬송을 불렀고 자면서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벌써 6월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상가상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두 번의 수술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수술도 잘 되었고 치료, 회복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방공동체 모든 분들의 기도와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갑자기 맞이한 위기 상황 속에서 폭풍 속에서 벼랑으로 떨어지는 시련의 시간은 있었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날개 아래 풀어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 연장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사랑방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생활하며 주님 품에 안전하게 다시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루터기사랑방 김영화 권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찬 송 : 445, 452, 582

성 경 : 마태복음 25장 34-40절

말 씬 :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이스라엘-이란 휴전>

이스라엘과 이란이 공격행위를 멈추기로 합의했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땅에 피가 더 흐르지 않도록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보냅니다. 오늘은 6.25입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세계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1) 몸과 마음이 불편한 지체들을 위해

2) 바이블데이를 모든 지체가 한 마음으로 잘 누리기를

3) 학기말을 맞이하는 사랑방공동체학교들을 위해

4) 어려운 국제형세 속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

드디어 감자를 캐었습니다. 비 소식이 있어 멧쟁이학생들과 함께 이른 아침에 수확을 했습니다. 곱게 자란 감자가 땅 속에서 쑥쑥 뻗혀 올라오니 탄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완두콩도 다 따 두었습니다.

비가 그치는 중간 중간 영농부 식구들은 밭으로 달려가서 작물들을 살피고 손님을 맞이했던 손길들은 손님들이 쓰신 침구들을 세탁하여 말리느라 애를 쓰셨습니다. 장마 중에도 생활공동체 일들은 계속됩니다.

< 장영미 전도사 >